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소머리곰탕의 속사정

한국인이 당대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볶음과 구이다. 기름(식용유)과 고기의 대량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일이다. 옛 잔치상에나 오를 만한 음식이다. 오죽하면 가장 정성껏 모시는 음식인 제사에 구이와 지짐류가 빠지지 않았는가. 소고기 산적을 올리는 제사가 많은데, 이는 과거엔 정성을 들이자면 으름에 속하는 공자 맹자를 기리는 제사상과 종교 제사에나 오르기 좋은 음식이었다. 그만큼 귀하고 비쌌다.

서울 장안에 반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지금의 성균관 부근인 명륜동 일대다. 조선 당국은 오랜 기간 금우를 정책적으로 지지했다. 소는 곧 경운기이자 트랙터였으니 고기 먹자고 죽이는 걸 금했던 것이다. 그런 조정에서도 성균관의 제사에는 소고기를 쓸 수 있도록 허락했으나, 반촌은 도살을 하는 마을을 뜻했다.

알다시피 고기구이라던 사족을 못 쓰는 민족이라 난로회 같은 구이 유희가 더러는 법망(?)을 피해 가며 열렸다. 주로 소고기를 화로에 구우며 시를 읊고 술잔을 나누는 연회였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양반이나 돈 많고 돈을 번 중인 계급, 관료의 사치였다. 이순신 장군의 음식상을 전해준 보편 거의 생선과 남새, 젓갈과 장의 밥상이었다.

앞에서 전 부치는 제사상의 유행은 이른바 식용유 도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으로부터 과잉 생산된 콩

의 대량 수입은 식용유라는 이름으로 60년대부터 크게 보급되었다. 식용유가 없을 때는 요즘 흔한 부침과 전도 최소화되었다. 들기름, 팜강기름 등 부침용 식용유가 상당히 비쌌기 때문이었다. 그때 무명전에 기름을 적서 두고 가마솥 뚜껑이나 빈철에 아껴 가며 전을 부치는 게 고작이었다. 콩은 기름 짜고, 깻묵은 사료화되면서 축산도 커졌다. 고기가 싸게 공급될 수 있었다. 80년대 이후의 지배적인 고지방 고단백 식사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앞서 반촌의 소고기 도축 이야기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테마가 바로 설렁탕과 장국밥의 유행이다. 조선 시대 수도 할양은 이 두 가지 음식의 배태지다. 반촌의 도살 마을은 품삯으로 소의 부산물을 얻었는데, 이것이 설렁탕이 되었다. 장국밥은 살코기 중심의 좀 더 고급한 외식이었고, 설렁탕이 더 많이 공급되는 메뉴였다. 그것은 소머리와 뼈 덕이다. 오래 고아 최대한 영양분을 추출한 설렁탕은 적은 재료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

특히 소머리는 엄청난 은혜였다. 구이를 할 만한 부위는 아니었지만 꼭 고면 맛이 좋았다. 지금은 설렁탕과 소머리곰탕으로 분화되었지만 50, 60년 전에는 소머리가 설렁탕에 포함되는 게 보통이었다. 소머리는 든든한 뼈가 넉넉한 국물을 내 주었고 끈득한 겹질, 고소한 불살, 여기에 우설이 더해져서 푸짐해졌다. 설렁

탕에는 소 지라가 필수였고 소머리곰탕에는 우설이 있어야 한다. 최근에 지라는 특유의 진한 맛 때문에 배척되고, 우설은 고급 구이용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별로로 빠져 팔리기도 한다.

설렁탕, 소머리곰탕도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소머리곰탕은 설렁탕에서 갈라져 나와 독자 노선(?)을 걷는데,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다. 무엇보다 진하고 목직한 황소머리의 부재가 크다. 소가 역우로서 기능을 잃으면서 고기소로 사육된 이후 거세가 가해졌다. 사육 효율과 고기 맛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부드러운 거세가 가해졌다. 지금도 암소 고기를 최고로 치는 관습이 있는데 이는 거세가 없던 시대의 흔적이다. 암소가 황소와 달리 이취(노린내)가 없고 부드럽기 때문에 생겨난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황소가 거의 사라진 당대에는 그 의미가 줄어들었다.

지금도 유서 깊은 소머리곰탕집 몇몇은 얼마 되지 않는 황소 머리를 구해 쓴다. 국물의 깊이, 고기의 양이 다른 까닭이다. 경기도 오산의 옛 장터에 가면 과거 육장이 할머니로 유명했던 집이 있다. 아직도 그 머느리 되는 분이 옛 맛을 지키고 있는데 역시 황소 머리를 구해서 쓴다고 한다.

변하지 않는 맛이란 없다. 소머리곰탕은 흥미롭게도 사육 기술의 발달로 옛날과는 조금 더 다른 음식이 됐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음식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또 하나의 가족



주성필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필자는 뇌혈관 질환 및 두부 외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 대부분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환자를 돌보고 있었던 어느날, 마음 아픈 경험을 했기에 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소개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겨울의 병동,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내고 병동에서 회복 중인 환자가 한 명 있었다. 당시 코로나 상황에선 보호자 한 명만이 환자 간호를 위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회진 중에 병동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니 젊은 여성 한 명이 어르신을 나무라면서 혼계하고 있었다. 흔히 없는 일이었기에 사연을 알아본 즉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젊은 여성이 어머니가 뇌출혈로 죽은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옮긴 후 이 어르신에게 환자를 잘 부탁한다며 간병을 부탁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혼돈 증세가 심하고 말도 잘 못하는 중증의 상태였고 간헐적인 체위 변경이 필요하며 대변을 받아 내야만 하는, 실로 손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다. 병실을 옮긴 후 딸이 찾아왔는데 환자의 전반적인 상

태 및 주변 환경이 석 좋지 않아 불편한 마음을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전달하던 상황이었다. 사실 이런 환자는 옆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보호자들 또한 많은 집중도 및 수고로움을 필요로 하기에 상당히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뇌졸중의 특성상 환자의 회복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가족들에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심적 스트레스가 큰 건 사실이다. 특히나 급성기 시기엔 환자 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환자의 딸 또한 이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필자 또한 수년 전에 부모님을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간병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피를 나는 내 식구가 아니기에 내 가족만큼 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근거 없으며 불안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불가피하게 간병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약간은 간병인의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춰 줘야만 하는 절박하고도 솔직한 마음이 든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신경외과 환자의 특성상 간병인의 역할은 실로 대단하다. 대소변을 다 받아 내는 경우는 허다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는 체위 변경까지도 해야 한다. 물론 간호사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의료 현실상 의료진에게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환자의 머지가 큰 경우에는 의료진 3~4명이 함께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경우도 많다. 자식으로서 환자의 상태가 궁금할라치면 의료진보다 간병인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간병인은 의료진의 말과 환자

의 상태 등 다 전화로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해 줘야 한다. 만약 보호자가 느끼기에 전화 내용이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 경우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다.

필자가 수년 기간이던 20여 년 전엔 환자 보호자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도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이런 가족 간의 사랑에 바탕을 둔 의무감으로 해왔던 일이었다. 하지만 가족 수가 줄고, 가족 간에 흠어져 살고, 고령화됨에 따라 가족 간의 보호자 역할은 줄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자리를 간병인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내가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대신 애써 주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다. 가족이 아닌 이상 하루 종일 환자와 함께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물론 거기에 대한 소정의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하겠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홀대하거나 나무랄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필자가 추측컨대 앞서 말한 환자 본인 또한 말은 못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너무나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가 아프면, 가족이 아프면 그 사이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 병원 생활을 한 번도 안할 수 없을 것이다.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환자를 위해 애써주는 사람이 가족 중의 한 명이면, 간병인이건 간에 그 역할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기에 존경받아야 한다. 필자는 전공의들에게 늘 이런 말을 남기곤 한다. 간병인도 또 하나의 가족이기에 짐심 어린 말투와 애정으로 보살펴 달라고.

기고

모든 생명들의 근원인 ‘물’



이창수 시인·남구 주민행복담당관 팀장

흐천1지구에서 3년 간 살게 되었다. 광주에 오래 살면서도 송암동 남곡인 효천지구에는 올 일이 거의 없었는데 고모의 권유와 도움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아파트 옆으로 철로가 있는데 효천역까지 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드나드는 게 특별하다면 특별한 무색부취의 동네였다. 그해 늦은 가을 광주 남구청에 시간선택제로 취임하게 되었다.

오후 5시엔 퇴근할 수 있어 좋았다. 6시에 퇴근하면 가족이나 차가 많은 배운광장을 빠져 나오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지만 오후 5시에는 차가 그리 많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데 편리했다. 집으로 와서는 가벼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대촌천을 따라 걷는 게 일과 되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도시 변두리에 불과했지만 들만 가운데에는 폭이 좁지만 수량이 풍부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퇴근 후 산책은 빛어울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대촌천 따라 가는 사이를 지나 찾길이나오는 데서 다시 포충사 뒤쪽으로 꺾어서 폐교정수와 토종종으로 유명한 광주정 앞

을 지나 다시 들만을 가로질러 대촌천 따라 집으로 돌아오면 그 여정이 끝난다. 왕복 4킬로미터가 넘는 산책길은 우울과 당뇨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겨울 동안 매일 걷고 걷는 동안 새 운동화가 너털너털해져 다시 새 걸로 바꿔지만 그 신발도 금방 예전의 그것처럼 너털너털해졌다. 시간이 지나자 아무 표정이 없는 것 같은 대촌천 주변으로 못 생명들이 하나둘 보였다. 폭이 좁고 어른 무릎보다 약간 더 깊은 수심 덕분에 잉어들이 잘 보였다. 지나다니며 큰 물고기 숫자를 세어 보기도 했다.

빛어울초등학교 옆 하천에는 물오리들이 쉼 마린 듯 날아왔다. 불이 오자 보리밭으로 들어가는 누런 죽제비 일가와 꽃밭도 보였다. 얼룩무늬 개구리들이 시멘트길에 올라와 나와 한참을 마주보기도 했다. 논 건너 야산 소나무 숲에는 흰 두루미가 수심 마라나 동지를 틀었다. 인간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거리 두기를 하는 사이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복원된 것이다.

봄마다 미세먼지로 사람들에 힘들게 하던 중국발 황사도 그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촌천 주변 강둑으로 달맞이꽃이 피고 반딧불이가 나타났다. 물이 맑아지면서 하천에 사는 식물들이 다양해지고 물고기들이 더욱 늘어났다. 왜가리와 두루미도 늘었다.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운 다른 생명들을 하나하나 초대한 듯싶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저녁에 나는 커다란 수달을 두 마리나 보았다. 재작년 여름 어둑어둑해질 무렵 빛어울

초등학교 옆 하천에서 강아지를 닮은 동물이 헤엄치는 걸 보았다. 나는 하천 한 가운데서 수달이 마음껏 헤엄치는 걸 보다가 휴대카메라를 꺼내 들었다가 그냥 집어넣었다. 수달이 노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한 무리의 낚시꾼들이 자리를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좁은 대촌천에 터를 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낚시꾼들은 늘어났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혀를 찼다. 담배를 피우물고 찌를 바라보는 강태공들이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장이 되었다. 무성하게 자란 수풀을 장화발로 짓밟아 낚시터를 만들었고 텐트를 가져와 낚발을 세기도 했다. 시멘트 포장길인 농로 갖길에 주차를 해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위험해졌다. 수달이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이사를 가야 했다.

두 달 전부터 아침저녁으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물이 부족하니 아껴 쓰자고 방송을 한다. 동북댐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져 당장에 큰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 했다. 공무원인 나도 시청에서도 ‘물 아껴 쓰기’ 캠페인에 동참해 전단지들 들고 나가야 했다. 우리보다 먼저 유럽의 다뉴브강은 바닥을 보였다. 뉴스에서는 큰 화물선이 바닥에 누워 있는 사진을 보여 주었다. 영국에서는 머리를 일주일동안 번만 감지는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책임이 크다 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다. 근원을 돌보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의무이다.

社說

튀르키예 강진 구조 행렬...인류애 함께 나누자

지난 6일 튀르키예(옛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을 강타한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고 이틀만인 8일 현재 사망자가 튀르키예 6234명, 시리아 2500여 명 등 9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부상자가 포함될 경우 사상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앞으로 인명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대규모 지진 피해는 대부분 건물 붕괴로 인한 매몰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건물 잔해에 깔릴 경우 구조를 위한 끝없는 타임을 48시간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인명 구조다. 더구나 강진 피해 지역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수색과 구조가 급박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어제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를 튀르키예 현지에 보낸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 구조대는 튀르키예에선 2541명 중 49%(1258명)가 담임 교사였다. 교사의 역할은 크게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로 나눌 수 있는데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은 교사로서 한쪽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담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교권 추락과 맞닿아 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 부담이 커졌고, 감당 없이 부추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중학교 담임 교사 3550명 중 32%(1144명)가 기간제 교사였다. 전남 또한 지난해 4496명의 중학교 담임 교사 중 22%(1032명)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4년 전에 비해 그 비율이 10%포인트나 상승했다.

초등의 경우 원래 기간제 교사가 적지만, 광주·전남에서 담임을 맡는 이들은 지난해 2018년 190명에서 지난해 263명으로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초중고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다. 광주는 1997명 중 59%(1181명)가, 전남

심화되는 교사들 담임 기피 방치해선 안 된다

교사의 역할은 크게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로 나눌 수 있는데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은 교사로서 한쪽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담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교권 추락과 맞닿아 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 부담이 커졌고, 감당 없이 부추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중학교 담임 교사 3550명 중 32%(1144명)가 기간제 교사였다.

전남 또한 지난해 4496명의 중학교 담임 교사 중 22%(1032명)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4년 전에 비해 그 비율이 10%포인트나 상승했다. 초등의 경우 원래 기간제 교사가 적지만, 광주·전남에서 담임을 맡는 이들은 지난해 2018년 190명에서 지난해 263명으로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초중고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다. 광주는 1997명 중 59%(1181명)가, 전남

에선 2541명 중 49%(1258명)가 담임 교사였다. 교사의 역할은 크게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로 나눌 수 있는데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은 교사로서 한쪽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담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교권 추락과 맞닿아 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 부담이 커졌고, 감당 없이 부추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중학교 담임 교사 3550명 중 32%(1144명)가 기간제 교사였다.

이탈리아 화제 작품 ‘아르미안의 네 딸들’ 레트로판 20권 세트 북 펀딩에는 1억 3000여만 원이 순식간에 모였고, ‘혁명의 뜨거운 열’을 알게 했던 김혜린의 ‘북해의 별’ (15권) 재발매 펀딩액도 6500만 원에 달했다. 두 작품 모두 순정만화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필독서’였다. 또 ‘식객’으로 유명한 허영만의 ‘오! 한강’은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최고의 교과서였고, 어렵게 구해서 본 그의 작품 ‘백’은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날 수 있는 명작이었다. 올해 탄생 40주년을 맞아 극장판 재개봉을 앞두고 있는 ‘아기공룡 둘리’의 주인공 둘리와 희동이, 고길동, 도치, 도우너, 마이콜은 또 얼마나 좋은 친구였던가. 요즘에는 웹툰이 인기라고 하지만, 종이 만화책이 주는 즐거움은 여전히 있다. 전일빌딩 245 3층에 문을 연 광주시립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웹툰과 함께 종이 만화책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슬램덩크’ ‘아르미안의 네 딸들’ 등 화제 작품들이 즐비하니 만화의 세계에 빠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kwangju.co.kr

無等鼓 (Buddhist chant) and 슬램덩크 (Slam Dunk)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QR cod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masthead with publication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contact information.